금주의 법구-〈법구경〉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깨어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9월 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16호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마음챙김 수행으로 사회 문제 극복하자"

28차 WFB 서울총회서 세계불교도 한목소리

전세계 불자들의 축제인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제28차 서울총회'에 참석한 세계 불교지도자들이 세계 및 한반도 평화와 세계인의 번영 등을 한목소리로 발원했다.

태국 스리랑카 등 전 세계 20여개국 불교지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현재 갈등과 전쟁 등으로 위기에 빠진 세계인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그 벽을 뛰어넘어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키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라는 주제로 9월 27일 WFB 제28차 서울총회 개회식이 서울AW 컨벤션 센터서 성대히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는 환영사를 통해 "서울총회 주제는 전 인류가 더불어 사는 지구촌 공생을 위한 준엄한 과제이자 불자들의 방향이 돼야 할 명제"라며 "서울총회와 관련된 각종 회의가 원만히 이뤄져 불교의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판 와나메티 본부회장도 대회사를 통해 "이번 총회 주제인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는 세계화가 모든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새로운 문화의 흐름이 급격한 변화를 선도하는 이 시대에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 생각한다. 불교 교리가 세계화의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떻게 인류 평화와 행복을 이루게 할지 논의하고자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북핵 문제로 갈등이 고조된 남북 문제를 의식한 듯 박근혜 대통령도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번 총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구촌 곳곳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와 행복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종파를 초월해 함께 하신 세계 불교지도자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지구촌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에 이어 WFB 본부측에서 불교발전과 종교 화합에 기여해달라는 의미로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대만중국불교협회장 원종 스님 등을 종교특별고문으로 추대했다. 개막식에 앞서 당일 오전에 열린 WFB 대표자회의에서는 집행위원회(EXCO) 신임 이사로 진각종 교무국장 수각 정사(前 WFB 재무분과위원장) 등 8명과 부회장 14명을 선출했다. 이어 열린 WFB 전체회의에서는 본부회장에 판 와나메티 총재를 재추대하고, 오계수지 상임위원장에 진각종 총무부장 덕정 정사를 선출하는 등 11개 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선출했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 7개 국가가 회원으로 새롭게 등록해 눈길을 끌었다.



9월 27일 WFB 28차 서울총회서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사진 왼쪽)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6개 아젠다 담긴 선언 발표
세계 · 한반도 평화, 안정 위한
불교도들 실천 방안 논의해
차기는 2018년 日 나리타서

9월 29일 서울 하월곡동 진각종 총인원 진각문화전승원서 국내외 불교 인사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폐막식에서는 이번 대회 포럼 내용을 집약한 아젠다가 담긴 서울총회 공동 선언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총 6가지 의제가 담긴 선언문은 △마음챙김 수행에 집중하며, 세계시민으로서 평화 · 조화 · 관용 같은 가치를 지킬 것 △모든 이들의 심신 건강, 개인적 성장, 가족과 사회망의 좋은 관계를 지지 △헌신과 책임을 다하는 WFB 지부와 협력체를 격려하며, 이들이 단합된 마음으로 WFB 창립 정신을 실천 △세계적인 위험 속에서 불교 수행을 통해 본래면목을 자각할 것 △WFB가 '지혜와 자비의 단일체'임을 신념으로 삼을 것 등이다. 이와함께 대중들은 29회 WFB 총회를 2018년 9월, 일본 나리타서 열 것을 결의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교리문제 '척척' 푸는 사관생도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실시하는 제8회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사관생도부문 시험이 9월 28일 5개 사관학교서 동시에 열렸다. 올해로 4회째인 사관생도 시험에는 총 900여 명의 생도가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사진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화랑호국사서 진행된 시험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

글 · 사진=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첫 '의전' 연구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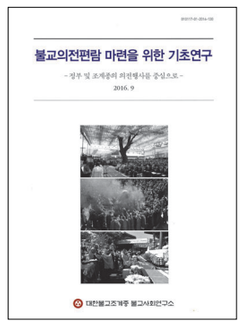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불교의전편람 연구' 펴내

현행 불교의전 기준점 '전무'
행사 분석 · 가톨릭과 비교
종단 의전전문팀 구성 제시
"의전 교육 구축" 과제 꼽아

법회 외 불교행사 시 적용되는 '불교의전'의 시행을 다룬 연구서가 조계종 사상 처음으로 편찬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9월 1일 '불교의전편람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집 〈사진〉을 펴냈다.

불교의전은 법회가 아닌 행사에서 진행되는 규범으로 중국 〈칙수백장청규〉(1335년)와 우리나라 〈석문의범〉(1935년)에 의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불교계 행사가 현대화되며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연구에서 불교사회연구소는 조계종 각종 행사 시행 실태를 분석해 의전 기준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봉축법요식, 종조다례재, 종정추대식, 방장승좌식, 국제행사, 주지진산식 등 사찰행사, 상량식 및 낙성법회, 호국의승행사 및 수륙재, 기우제, 백고좌법회, 다비식 등 행사서 기존의 의전방식을 소개하고, 역사에 근거한 표준절차를 제시했다. 각 행사마다 표를 통해 역사기록과 시행범위, 표준화된 절차 등이 보기쉽게 정리됐다.

이와 함께 연구서는 현행 불교의전 시스템의 개선점도 밝혔다.

연구서에 따르면 현재 조계종은 통일된 편람, 실행매뉴얼이 정비돼 있지 않을뿐더러 그 시행주체도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는 상태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여기에 더해 각 사찰에서는 실행도 제각각인 상황"이라며 "특히 지방행사의 경우 과다한 내빈 인사 등으로 불교색 마저 없어진 경우가 있다. 중앙종무기관부터 의전전문팀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서에서는 이웃종교의 의전시스템과 조계종 의전시스템의 비교도 진행됐다.

가톨릭의 경우에는 의전사제단이 구성돼 보다 장엄한 전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의전팀에 대한 구성조건과 보수, 복식 등을 명확히 지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장기적으로는 불교의전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전통인사 등 일상생활 의전교육, 다례 · 공양, 주요불교행사 설행 등 기본의전교육, 국제불교영어 등 전문분야 의전교육 등 다양하다. 현재는 이뤄지지 않는 이런 의전교육을 통해 전반적인 의전관리능력을 상향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와 불교의 접점인 불교의례 행사를 장엄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주어사 바른 역사 계승 '종교 화합 거점'으로

아리담문화원, 11월 화합 마당
9월 30일 심포지엄 열고 논의

불교와 천주교 간 갈등이 촉발됐던 주어사서 종교 화합 한마당이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수원 아리담문화원(원장 송탁)은 11월 5일 오후 2시 여주시 산북면 주어리 하품2리 마을회관서 '주어사의 올바른 역사 계승을 위한 화합 한마당'을 개최한다.

한국 7대 종단 협의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 종교평화 시민모임 '사이좋게' ·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불교 · 유교 · 가톨릭이 함께 어우러져 주어사를 화합의 거점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주어사는 조선 후기 천주학을 공부하던 학자들이 강학을 진행하던 곳으로, 이들을 보호해주던 주어사 스님들이 1801년 신유박해 당시 함께 수난을 당하며 폐사됐다. 이후 가톨릭 신자들은 주어사 성지화를 추진하고, 조계종 용주사 신도들이 복원 기도를 봉행하며 종교 간 갈등을 초래한 바 있다.

아리담문화원 측은 "다른 문화의 이해와 차이의 수용은 현대사회 화합과 번영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주어사의 역사적 이해를 통해 서로 다른 종교의 문화가 어떻게 융합돼 왔는지 알아보고, 계승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화합한마당은 불교 · 유교 · 가톨릭의 합동 추모 의식에 이어 뮤지컬 및 판소리 등 문화예술제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낮 12시부터는 주어사지 순례 명상이 실시된다.

한편 아리담문화원은 9월 30일 수원 화성박물관 다목적 강당서 '주어사의 올바른 역사 계승을 위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발제는 △서종태 전주대 교수 △이상봉 불교사회연구소 사무국장 △박정임 경기일보 부장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맡았다. (031)216-2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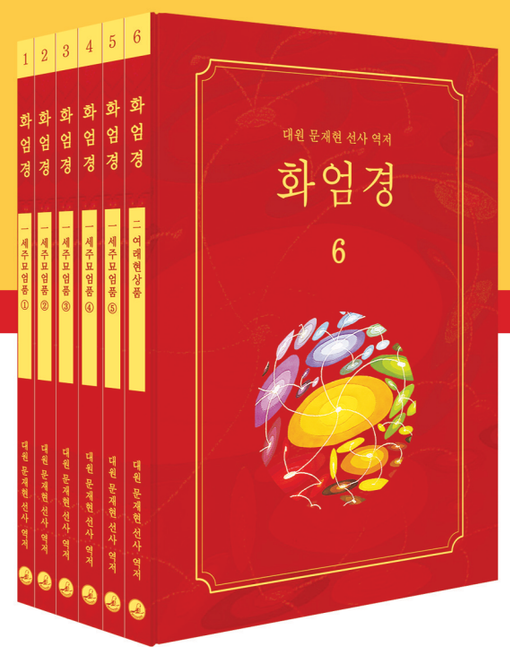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중국 선종 사찰 순례
① 소림사 上 12면

산문 밖의 禪
신현득 前 불교아동문학회장
14 · 15면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81권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6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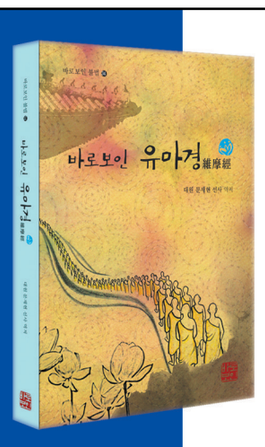
출간 불사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라 할 것이니, 불보살님이 교화하는 경지에서의 깨달음의 실경과 신통자재한 방편행을 보여주는 최상승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가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가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禪의 일상, 禪의 누림!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구, 바로보인)